



# 신행수기 작은 정성이 큰 사랑으로 <상>

유경남 (71 · 용인시 기흥읍)

1981년 2월 그해 학년 말에 나는 27년간의 긴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전업주부로 돌아가기 위해 다니던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5남매의 자녀들이 성큼성큼 자라서 해마다 반박되는 삼급학교 진학문제와 어느 새 훌쩍 커서 이제는 혼인 적령기가 가까워진 큰 아이들의 혼사문제 등을 차분하게 들어앉아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였다.

볼이켜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만 했던 지난 세월이었다. 아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오랜만에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명상도 해보고 가끔 등산도 하면서 색채색록 떠오르는 지난날의 추억 속을 헤매기도 했다.

아주 오래전 경주로 수학여행 갔을 때 불국사와 석굴암을 견학하면서 경내의 묵탁 소리에 맞춰 은은히 흘러나오는 스님의 독경소리에 이상하리만치 가슴 벅찬 환희를 일으켰던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하였다.

나는 등산할 때마다 산사에 들러 스님의 법문도 듣고 법당에 들어가 참배도 드렸다. 나는 신도카드를 만들고 불자가 되어 절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곧바로 불교중앙대학에 입학해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그때 무진장 스님이 종종 오셔서 법문을 하셨는데 '초발심사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란 <법정계>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법문하실 때 처음 받심할 때가 바로 부처를 이룬 때라고 하셨다.

나는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불경도 외었다. 가끔 큰스님의 법문도 듣고 새로 사간 도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내 눈앞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크고 넓고 광활한 세상이 전개되면서 활동 영역이 무진장 넓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아직은 사성제가 무엇인지, 육바라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였지만 스님의 법문 중에서 이타행(利他行)이란 낱말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책찌집을 하며 떠나지를 않았다.

"남을 이롭게 한다?" 골똘히 생각하다가

문득 자원봉사가 생각났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 공리를 하면서 앞뒤를 살피다가 교육자 가족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상록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남편은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어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 단체에 가입해 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은 천성이 외골수인 분이

구입해 주었다.

어느 정도 불교를 이해하고부터는 쉬는 날이면 나와 같이 절에도 나가고, 시간이 있으면 기부자를 들고 앉아서 참선을 했다.

나는 곧바로 그 단체(상록회)에 동참하여 여러 선배들과 함께 자원 봉사를 했다.

상록회의 활동 분야는 매월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회비를 모아 고아원과 양



그림 · 김홍인

## "남을 돕는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네"

라 내가 봉사 활동을 하려면 남편의 이해가 꼭 필요했다. 그래서 우선 남편도 불교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독서를 좋아하는 그에게 이광수 소설 <원효 대사>란 책을 사다 머리맡에 두었다. 의외로 재미있게 읽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계속해 불경을 비롯한 큰스님 법어집 등을 많이

로원을 찾아가고 내복도 사다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게 오는 일이다.

다음은 국군 통합병원, 보훈병원에 가서 수술실에서 쓰는 거즈를 접는 일, 우리 손이 필요한 일을 도우며 가끔 과일도 사다 나눠주며 위로를 해 드린다.

나는 누구를 돕는다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고 즐거운 줄을 미처 몰랐다. 봉사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록 점점 매료되어 달력을 보며 그 날짜를 기다리는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 밖에 상록회에서는 서울시 교원 유자녀 학생 장학금과 체육선수 육성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를 여러 해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회원들이 손수 만든 공예품도 팔고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알뜰시장도 열어 기금을 마련, 교육자유자녀 장학회를 설립했다. 유자

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 그 가족으로부터 눈물로 얼룩진 감사의 편지도 받았다.

1984년 4월 13일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교육가족으로서 귀감이 되는 활동에 헌신, 수도교육발전회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감사장을 받았다.

1983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우리가 맡은 일은 국군 통합병원과 같이 중환자 수술실에서 필요한 거즈를 접는 일이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부분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분도 많았다. 우리 회원들은 진심으로 그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일에 임했다. 이렇게 변함없이 10여 년간 고락을 같이 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상록회 회원들이 이제는 연세도 많이 들고 남편들의 정년퇴직과 함께 뿔뿔이 헤어지고 현재는 단 4명만 남게 되었다.

우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자고 다짐을 하면서 다시 일할 사람을 찾아 보았다. 그 당시 나는 다니고 있는 절에서 신도회조직을 맡고 있었는데 예불이 끝나고 주지스님께서 회장으로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하라고 시간을 내주셨다.

나는 거기에서 신도들에게 자원 봉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힘을 주어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다들 의외로 반가워하면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닿지 않아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아 이래저래 37명의 회원이 모이게 되었다. 또 그 회원들과 친히 지내던 도반들까지 동참하여 몇 달 안에

70여명의 회원이 모이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칠봉회(七奉會)라는 이름 아래 회장으로 선출이 되어 많은 회원들을 인솔하게 되었다.

칠봉회의 뜻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매월 7일, 27일을 정해놓고 봉사하는 날이란 뜻이다.

이제는 명실공히 서울대학교병원 봉사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팀이다.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였다.

1992년 연말 평가회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자로 환자 진료에 공로가 크며 서울대병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우리가 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며 나는 불교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한국 불교법사대학에 입학했다.(계속)

# 칠레이 수행일기 <상>



정상현 춘천시청 지적과장

어머님께서는 절을 다니셨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사랑을 찾는 것은 관람을 제외하고는 없었는데, 1993년 지역신문에 난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공고를 보고 춘천 석왕사를 찾은 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신행이 시작됐다.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호기심으로 출발한 것이 옛것과 같은데 12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강의를 매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

되돌아 보니, 큰스님들과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알음알이'는 많아진 것 같은데 막상 불자로서 생활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내 보일 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보이기 위해 불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강원불교대학 4기 학생회장, 동 대학 3대 총동창회장 같은데 막상 불자로서 생활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내 보일 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 갈등·스트레스 많은 민원업무 36년

### '천수다라니' 독송으로 평상심 추구

위한 일만 앞장서고 있는 내 모습과 마음을 보며 어쩔 수 없는 속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마음 뿐이다.

<금강경>에 '상(相)을 없애면 여래를 보리라'는 말씀과 금강경 사구계 만이라도 수지독송하고 타인을 위해 알리면 보시 공덕이 무량하다는 말씀에 위안을 삼으며, 불자의 길을 가려고 정진하고 있다.

필자의 담당 업무 특성상 민원인(토지 소유자와 직접 마주하는 일을 36년 동안 해 오면서 일터가 바로 수행도량인 셈)을 심감하고 있다. 재산권이 관계되는 일로 문제가 발생하면 한 치의 양보가 없어 힘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이런 갈등이 세월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추세여서 공직수행상 심각한 부담이 되지 않았다.

2년전 관내 사찰 주지스님의 말씀에 따라 <천수천안 백천 대다라니 경>을 독송하고 일과를 시작하고 부러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도 큰 탄압이 원만하게 해결 됨을 느낄 수 있다. 또 급한 성격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는다 판단되면 화를 그대로 표출하는 버릇도 나

이를 먹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어느 때부터인지는 몰라도 많이 수고러진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법문보다는 강의로 불법에 입문한 관계로 스님들께서 강조하시는 신(信)해(解)행(行)증(證)전체 보다는 '해'에 중점을 두고 공부한 것이 사실이었다. 누가 종교를 들을 때 불교라고 멋 멋하게 대답하게 되기까지도 3년여

기간이 소요됐을 정도로 잘 알지도 못하는 알팍한 지식으로 믿음(신)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던 것 또한 숨길 수 없다. 불법에 귀의하고 달라진 점, 아니 의식적으로 변화 하려고 한 점은 성안 내는 얼굴과 언행으로 지켜주던, 직장 동료, 친구들을 막론하고 누구든 차별하지 않으려 한 점이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직원들과 도반회원들에게 공부할이라는 직분이라는 직분이 든 밭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해결하면서 생활 자체가 보시행을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 자리에서 주인되어 진리를 실현하라'는 '수취자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을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실천에 옮기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짬짬이 <만아심경> <법성경> <천수경> 등을 사경하는 것이 마음의 평정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 출범 4년에 접어든 지금, 8명으로 출발해 70명이 넘는 인원으로 증가한 춘천시청 도반회와 직장 밖 친구들과 결성한 '춘천 불이회'를 활성화 해 지역사회 발전과 불법 홍보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폭 담겨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편(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siswhy@buddhapia.com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볼자답게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 카렌다

2005년 불교카렌다 출시

**15년 전통 최고의시설 최상의제품**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 \* 1,000부이상 주문시 포지그림으로 귀 사찰을 넣어서 인쇄를 원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진 또는 필름사용 가능)
- \* 각 사찰카렌다 특권을 저렴하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 \* 문의사항 전화주시면 카다목을 보내드립니다.

**원일문화사**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 (02)2277-0304  
 FAX: (02)2268-6732  
 Homepage: www.wonil-c.co.kr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 제2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9월 7일(화)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정**

- ㉠ 초급반 (3개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서,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 ㉡ 중급반 (3개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디림법, 정안시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 ㉢ 작법반 (6개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6시) 천수바라, 대개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일 바라 내비춤)
- ㉣ 고급반 (6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의명자 소수)

대구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신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문의 전화: (053)622-0333 / 011-699-9120

\* 기사산 청정도량에서 철하기도는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정진하오니, 불자들의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 승복 범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울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 광목 (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 (역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 (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 (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대구 중구영남동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천문 업체 원방각

### 아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기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형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불행한 운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중생은 그 불행한 운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떠나면 안 되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관음사는 아프고 고통받는 중생들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스님과 상담하고 기도하는 법당이며 스님은 삶의 굴곡을 겪고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답답함과 고민을 스님의 도력으로 그 불행한 운을 퇴치시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 굶을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나 부모자식간에 원인이 끼어 서로 같이 살면서도 고통속에 살며 자식이 결혼운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가 장사가 안되고 매매가 안되 궁궁하신 분
- 인생의 성공과 실패 시험결과, 사업의 시작과 끝 즉 자신의 사주에 들어오고 나가는 운이 궁궁하신 분
- 신들림으로 몸이 아프거나 실성하고 헛소리나 행동을 하는 사람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답니다. 아직 인연이 닿지않는 분들 혼자서 고민 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오. 조상전도 낙타이전도 병고를 가져오는 객귀를 많이 많이 들어 말씀하시는 분 연락주시면 보시는 미음으로 성심으로 병행 하겠습니다. 천도란 천만에는 3억도에 떨어져 있는 가장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고 두번째는 인간됨을 받았지만 믿든지 되는 노릇이 없고 내뚫고 맞지 않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천도란 자기소원을 이루고 가지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을 진경하면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 광진구 광진사거리 **용암사 주지 고봉 합장**  
 전화 011-715-6333

불사에 어려운 스님 사주통변비법과 기공과 명상으로 영가천도를 하는